

# 친일파 땅 투기와 도청 이전, 그 대가로 만들어진 금강철교

이영천 | 작가

친일파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는 해방 후 친일 청산에서부터 작금 권력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하나의 흐름이다. 우리 해방 후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다. 그들이 분단 세력이자 반공주의자로 탈을 바꿔 쓴다. 독립운동을 모함 살해하고, 모리배가 되어 극렬한 부정부패는 물론 쌀을 비롯한 생필품 매점매석으로 폭동의 원인까지 제공하였다.

분단 획책도 부족해, 1961년 쿠데타로 아예 나라를 훔쳐버린다. 굴욕적인 사대 외교를 권력 유지의 근간으로 삼았다. 친일파는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언론·학문 등 모든 부문에서 권력 및 지배담론으로 군림하고 있다. 오점투성이 우리 근·현대사가 이 단어 안에 오롯이 녹아들어 있다.

어느 한 친일파가 착복과 세금 수탈로 거대한 부를 쌓고, 도청 이전이라는 고급정보를 이용해 엄청난 부동산투기를 저지른다. 공주 갑부로 소문난 김갑순(金甲淳)이다. 이 자가 저지른 악행으로 다리가 생겨났으니, 바로 금강철교다.

공주 감영의 사령 군노 시절 투전판 단속에 나선 김갑순이, 묘령의 여인을 만난다. 이 여인을 충청감사 첩으로 들여왔던 뒤부터 그의 관운이 열리기 시작한다. 관리가 되어 왕실 토지 등에서 거둬들인 곡식을 착복하여 수탈하고 세금을 빼돌려 부를 쌓는다. 구한말부터 친일에 나선다. 온갖 해괴한 짓으로 돈을 모은다. 토지조사사업으로 총독부가 빼앗은 땅을 식산은행 대출을 받아 싼값으로 사들여 재산을 불린다. 이후 운수업, 극장, 금강 배다리, 공유수면매립 및 신시가지 조성, 유성온천, 신문사 등 각종 이권 사업에 진출한다.



금강을 건너는 트러스 금강철교. ©공주시청

## 일제의 도청 이전

공주는 호서와 호남을 잇는 교통과 상업 중심기능은 물론 충청감영이 있던 행정중심지였다. 공주를 근거지 삼아 큰 부를 쌓은 김갑순은 관료 때 맺은 연줄을 십분 활용한다. 돈의 힘으로 자식을 전부 정략결혼 시킨다. 7남 4녀 중 죽은 4남과 6남을 제외한 아들·딸을 앞세워 친일 재력가나 정치인과 사돈을 맺는다. 그의 손아귀엔 부는 물론 재력이 및 관료와 촘촘한 정보망이 형성된다.

강제 병합을 전후해 대전이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가 지나는 교통요충지로 변모한다. 공주가 누리던 중심기능이 급격히 대전으로 옮겨간다. 일제강점기 형성된 신흥도시가 그렇듯, 대전이 상공업 중심도시로 떠오른다. 더욱이 일본인이 대거 몰려들면서 공주보다 발달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신흥도시로 변모해 나간다.

일제의 한반도 개발은 효율적인 대륙침략을 위한 교통시설 구축으로 집약된다. 엑스(X)자형 철도망을 구축하고, 행정 편의라는 명분으로 철도가 통과하는 지점에 도청 소재지를 이전시키는 행정체계 재편을 펼쳐나간다. 이는 효율적인 식민지 지배체제 확립 수단이다. 또한 통치구역 정비로 조선의 기득권세력을 약화하고, 이주해 온 일본인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해 주려는 의도에서다. 치밀한 식민도시 건설 전략이다.



공산성에서 바라본 금강철교. ©이영천

1910년에는 경기도청이 수원에서 경성부로, 1920년 함북도청이 원산에서 나남(청진)으로, 1923년에는 평북도청이 의주에서 신의주로, 1925년 경남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각각 이전한다.

이런 추세로 보면, 시기의 문제일 뿐 충청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는 건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었다. 강제 병합부터 김갑순은 이를 알고 있었다. 1925년 경남도청 이전 과정에서 빚어진 격렬한 반대운동 같은 것이 걸림돌이라면 걸림돌이다.

## 투기꾼과 도청 이전 반대운동

김갑순이 대전 땅에 눈독을 들인 건 경부선이 개통한 1905년부터다. 호남선이 개통한 1914년에 이르러 그는 착복한 돈, 은행 대출, 해괴하게 모은 돈, 공주에서 각종 사업으로 벌어들인 재산을 쏟아부어 대전 땅을 야금야금 사들인다. 종국엔 대전역 중심으로 대전천 건너 남측의 22만 평을 손에 넣는다.

1929년 조선 총독 야마나시 한조가 시베리아로 출정하는 일본군 금괴를 빼돌린 '의옥사건'이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친일파와 대전 일본인이 총독에게 뇌물 10만 원으로 '충남도청 이전을 로비'한 사건이 폭로된다. 이로써 공주가 발각 뒤집힌다. 반대 기구로 '공주시민회'가 조직된다. 하지만 총독부가 부린 억지로 반대운동은 흐지부지하고 만다.

이듬해 후임 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대전으로 도청 이전을 전격적으로 공식화(1930.01.17)해 버린다. 그해 '충남도청 이전 신축예산이 책정(11.10)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 충남 각 지역이 도청 이전 반대파와 유치파로 양분된다. 유치 활동을 벌인 곳은 천안과 조치원, 논산 등이다.

이때부터 공주시민회가 격렬한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지역 공동이익에 조선인과 일본인이 너나없이 협력한다. 대규모 시민회를 개최하고 3천여 원의 운동자금을 모금하는 등 반대운동이 활기를 띤다. 이에 도지사 관저 앞에 500여 명이 모여 시위(1931.01.03)하고 동시에 30여 명의 진정 위원단을 총독부에 파견하는 활동을 벌인다.



한겨울의 금강철교. 김갑순이 배다리를 운영하던 자리에 놓였다. ©공주시청

공산성 서문과 주변 풍광.  
©이영천



하지만 총독부는 요지부동이다. 공주는 교통이 불편해 행정중심지로 부적당하고, 청사가 낡고 협소해 행정 편익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김갑순을 비롯한 대전에 넓은 땅을 사들인 일본인과 일본기업의 뇌물과 로비가 힘을 발휘한다. 총독부는 내무국장 명의로 충남도청 대전 이전을 기정사실화(01.13)시켜 버린다. 대전에 대대적인 땅 투기를 벌인 김갑순과 일본인들 얼굴에 웃음꽃이 핀다. 1~2전에 사들인 땅이 몇백 원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때 대전 땅 40%가 김갑순 소유였다.

시민회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도청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도청 앞 시위를 주도(01.16)한다. 대규모 인원이 서울에서 총독부에 항의하는 한편, 시민회 회장 마루야마 도라노스케 등이 도쿄로 가 제국의회에 진정을 넣는다. 시장 상인들도 철시로 동참한다. 도청 당국자는 임시 대표를 불러 회유하는 한편, 경찰을 시켜 시민회 간부를 잡아들이고 사무실을 수색하는 탄압을 동시에 벌인다.

일본 제국의회 중의원에서 “의회는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정신으로 진정을 청취해야 2천만 조선 동포의 신뢰와 위안을 얻을 수 있다”며 도청신축 예산을 전액 삭감(02.05)한다. 시민회도 책자 등을 통해 이전 부당성을 홍보하고 나선다. 그러나 일본 제국의회 귀족원은 중의원 결의를 무시하고 총독부를 지지해, 도청신축 예산을 승인(03.13)해 버린다.

공주는 3월 13일 밤부터 며칠 밤낮으로 저항한다. 공산성에서 횃불 시위를 전개하고, 시장통에서 투석전을 벌이는 한편 김갑순 소유 극장에 불을 지르기도 한다. 격렬한 시위가 며칠을 이어간다. 일제는 300여 경찰력으로 시민 50여 명을 잡아 가두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선다. 그러나 4월에 시행된 읍회 의원선거를 끝으로 반대운동은 사그라들고 만다.

김갑순은 대전에 사 놓은 땅 일부를 도청 청사 용지로 헌납한다. 원조 투기꾼다운 참으로 뛰어난 감각이다. 도청이 들어서면 주변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친일 모리배를 넘어선 악질 중 악질다운 면모다.



옛 충남도청(2009년)의 모습. ©국가유산청

청사는 상량식이 거행(1931.12.12)되어 공사비 35만 9천 원을 들여 준공(1932.05.30)된다. 같은 해 충남도청의 대전 이전을 공식화하는 '조선총독부령 제48호'가 공포(06.17)되고, 연이어 청사 이전이 완료(10.01)된다. 김갑순은 대전에서 자기 돈으로 자기 땅을 비싸게 사들이는 수법으로 자산을 불려 나간다. 원조 투기꾼다운 기질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 도청 이전으로 세워진 금강철교

이제 공주의 관심은 도청 이전에 따른 보상에 쏠린다. 그러나 총독부는 해를 넘기도록 어떤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뒤늦게 읍사무소 앞뜰에서 공주시민회(1932.07.10)가 열린다. 대표들은 '충남도 및 총독부 예산으로 시행해야 할 13가지'와 '국비로 시설해야 할 7가지'에 대해 총독부로부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보고한다. 이는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망라한 것들로 주요사안은 '시장(市場)의 읍 직영, 공주~조치원 노선 철도국 직영' 등이다. 이는 모두 김갑순 소유물들이다. 시민들이 김갑순에 대한 응징 수단을 요구사항에 집어넣은 것이다.

그리고 '중선 철도의 건설·관립 사범학교 설치·빈민구제 자금의 융통 등 당장 해결해야 할 보상 요구사항 3가지'를 결의한다. 총독부가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내용은 금강철교 가설, 농업학교 개설, 사범학교 설립, 재판소·잠중시험소 등 각종 도청 부속기관의 대전 이전 보류 등이다.

통행료를 받던 김갑순의 금강 배다리 사업을 금강철교가 무력화시킨다. 이렇듯 금강철교는 김갑순의 더러운 욕망을 응징하려는 공주 시민의 의지가 만들어낸 다리다. 신의주~목포를 연결하는 국도 1호선의 금강을 횡단하는 주요 구간이다. 다리는 1932년 1월 착공하여 이듬해 10월에 완공된다. 길이 514m, 폭 6m, 평균 높이 약 20m의 곡형 트러스교다. 완공 당시 한강 이남에서 최대 길이로 한국전쟁 때 교량 2/3가 파괴되어 1952년에 복구하고, 2002년 보강하여 현재에 이른다. 1t 트럭 이하 소형화물차량과 소형차에 해당하는 승용 차량 등의 일방통행용 교량으로 사용 중이다.

금강철교는 시민의 한(恨)이 만든 다리다. 지금은 야간 경관조명으로 맛을 부리는, 공주 시민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다리로 변모했지만 말이다. 🇰🇷



석양이 깃든 금강철교. ©공주시청